

문화예술 전석진 · 사회봉사 황기중 · 지역발전 박종철

제15회 고성군민상 수상자 확정 ... 23일 '제29회 고성군민의 날 및 수성문화제' 개최식서 시상식

제15회 고성군민상 수상자로 △문화예술부문 전석진(76세, 진부령미술관 명예관장) △사회봉사부문 황기중(64세, 운봉리 이장) △지역발전부문 박종철(55세, 재경전진초등학교 총동문회장)씨 등 3명이 선정됐다.

고성군은 지난 9일 군청 상황실에서 고성군민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시상식은 23일 개최되는 '제29회 고성군민의 날 및 수성문화제' 개최식에서 열린다.

문화예술부문 수상자 전석진씨는 지난 1999년부터 현재까지 진부령문화스튜디오 운영을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가치를 높이고 관광명소화를 추진하는데 앞장선 공로다.

8,085점의 소장품 전시 및 다양한 작품의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고성군의 문화예술 저변확대에 기여하는데 주력했다.

또 한-러-일 국제교류전과 관내 서양화반 달홀그림기 특별전, 초청작가 및 예술인 관내투어 등 예술분야의 다양한 교류를 추진함으로써 고성군을 홍보하고 지역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했다.

사회봉사부문 수상자 황기중씨는 2006년 10월 3·1독립애국지사구국충정승모비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승모비건립을 위해 주력하고, 태극기달기 운동을 전개해 지역민에게 애국·애항심을 심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다.

또한 2007년 6월 승모비제막

및 승모제행사 개최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5회째 행사를 개최하면서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어린이 문예백일장대회 개최, 소원을 담은 쪽지달기 등 애국심 고취를 위한 승모제와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해왔다.

지역발전부문 수상자 박종철씨는 고향발전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출향인으로 고성군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고향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사는데 앞장선 공로다.

특히 지난 1999년부터 재경고성군민회와 고향을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통해 회원들의 고향사

랑을 이끌어냈으며, 고향의 관광경기 활성화 및 고성오대미 등 지역 농수산물을 수도권에 널리 알리는 등 고향을 위한 각종 협력사업에 열과 성을 다했다.

또한 지역축제, 문화예술행사 개최시 재경군민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로 고성주민들이 강

하게 결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했다.

고성군민상은 지난 1994년부터 시작돼 그동안 문화예술분야 8명, 사회봉사분야 9명, 체육진흥분야 10명, 지역발전분야 4명 등 총 31명이 상을 수여받았다.

최광호 기자



전석진



황기중



박종철

“제빵 명장이 되고 싶어요”

동광고 박지아 제46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제과·제빵부문 우수상

동광산업과학고등학교 3학년 박지아 학생(사진)이 전국 제과제빵 기능경기대회에서 영동권 최초로 입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박지아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충북에서 열린 제46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제과·제빵 부문에서 우수상(4위)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는 16개 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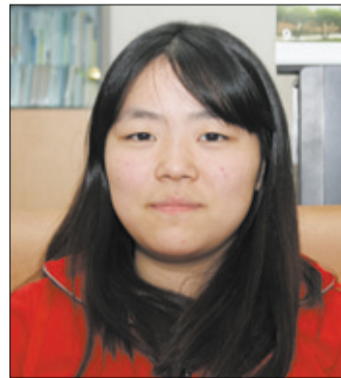
에서 1,896여명이 참가했으며, 도내에서는 21개교 35직종 110명이 참가했다.

박지아는 “저를 위해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 최고의 요리사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아는 지난 2009년 학교

에 제과·제빵과가 개설되면서 과를 선택했다. 선발 당시만 해도 여느 학생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그녀는 그 해 10월에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제빵과자 페스티벌’을 관람한 뒤부터 훈련에 매진했다.

그러던 중 부모의 반대에 부딪혔다. 박지아는 “처음엔 무지 반



대를 하셨다”며 “그러면 그럴수록 더 열심히 해 부모님께 나를 보여주려고 노력에 노력을 거듭했다”고 했다.

학업이 끝나는 오후 5시 이후

부터 저녁 9시까지 매일 그날의 빵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실습을 병행해 훈련했다. 결국 고집과 훈련을 통해 보여준 그녀의 노력에 부모도 허락을 하게 됐다.

“부모님이 고집을 못 이긴척 허락을 해 주신 것에 정말 감사드려요. 어려운 길에 접어든다는데 허락해 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항상 감사해요.”

박지아는 “앞으로 최고의 요리사가 돼 부모에게 못다한 효도를 꼭 해드리고 싶다”며 “지금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 최고의 제빵명장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박승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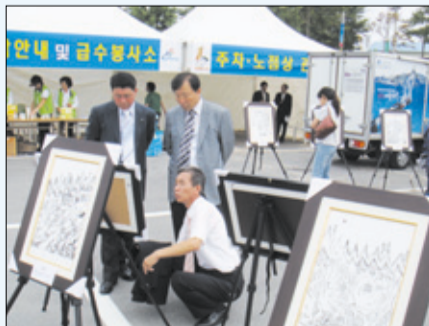
수성문화제의 성공개최를 기원합니다

■고성향토문화연구회목적

고성 향토문화연구회는 고성군 역사와 문화 및 향토사의 조사, 발굴, 연구 통하여 지역 전통문화를 체계적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지역문화 계승 보전시키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성향토문화연구회 업무내용

- 고성군 지역 역사와 문화의 연구
- 금강산 지역 역사와 문화의 연구
- 문화재의 보존 방안
- 현장답사 및 연구발표회(1차문화재 활동 포함)
- 연구논문집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
- 기타 연구회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고성향토문화연구회